

“더 넓게 더 청량하게”… 주류업계, ‘풀오픈캔’ 경쟁력 강화

윙뚜깅 전체가 열리는 방식
MZ세대 믹솔로지 제품 각광
업계 “장기적 수요 유지 관건”

“전체가 열려 더 시원하다”는 소비자 반응과 함께 국내 주류업계에 ‘풀오픈 캔’ 바람이 거세다.

풀오픈 캔 제품은 윙뚜깅 전체가 열리는 방식으로 기존 캔맥주보다 입구가 훨씬 넓어 입 안 가득 퍼지는 탄산감과 시원한 목넘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개량감이 크다 보니 마치 직접 따듯한 청량감을 제공하며, 내용물이 한눈에 보여 위생적 신뢰감도 높다. 또 입구가 넓어 다른 주류를 섞어 마시기도 좋아 MZ세대 사이에서는 믹솔로지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같은 반응에 국내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하고 있다. 오비맥주,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주류 기업들이 앞다퉈 풀오픈 캔 신제품을 내놓으며 시장 선전에 나서고 있다.

오비맥주의 라거 브랜드 ‘한맥(HAN MAC)’은 지난 7월 캔 내부에 특수 설계를 적용, 개봉 후 시간이 지날수록 밀



크리시 풀오픈 캔 포스터

/롯데칠성음료

도 높은 거품이 스스로 형성되는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생 캔’을 출시했다. 기존에는 생맥주나 전용 거품기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풍성하고 지속력 있는 거품을 캔 속에 구현해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출시 4주 만에 일부 매장에서 일시 품절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소비자 반응이 뜨거웠으며, 이에 힘입어 이달부터 판매 채널을 전국 편의점으로 확대했다.

오비맥주는 전국 주요 편의점 입점과 함께 한정판 기획팩도 선보였다. 330ml 6캔 기획팩에는 탈·부착 가능한 전용 ‘캔 핸들’을, 12캔 기획팩에는 시원한 음용을 돕는 ‘캔 쿨러’를 포함해 소비자의 소장 욕구를 자극했다. 또 제품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팝업스토어 ‘스무스토피아(Smoothopia)’도 기획했다. 19일부터 사흘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 178’에서 열리는 이 팝업은 ‘부드러운

(Smooth)’과 ‘이상향(Utopia)’을 합친 이름처럼 풍성한 거품과 부드러운 목넘김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캔 뚜껑이 통째로 열리는 풀오픈 캔 구조의 입구, 10분마다 솟구치는 거품 조형물, 거품 소리를 표현한 음향 효과와 안개 연출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방문객이 제품의 특성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SNS 이벤트와 이색 포토존까지 마련해 MZ세대의 체험·공유 욕구를 겨냥했다.

롯데칠성음료는 보다 앞선 지난 5월 ‘크리시 풀오픈 캔’을 출시해 강한 탄산과 시원한 맛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했다.

업계는 풀오픈 캔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새로운 음용 문화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신선한 경험’에 기반한 풀오픈 캔의 특성상 장기적인 수요 유지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출시 초기 폭발적인 반응 이후 재구매율 관리가 중요하다”며 “차별화된 패키지가 일시적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맛, 가격, 유통 전략과의 결합이 필수”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스타벅스, 가을 신메뉴 출시

스타벅스가 18일 서울 스타벅스 한국프레스센터 점에서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를 비롯한 가을 음료 출시를 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한국P&G-리스테린

구강케어 완벽조합 기획전

한국P&G의 구강관리 브랜드 오랄비가 오는 29일까지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는 구강청결제 브랜드 리스테린과 ‘구강케어 완벽조합’ 기획전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두 브랜드의 대표 제품을 구성해 양치와 가글로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는 플라그 제거부터 입 속 유해균 억제까지 구강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오랄비 칫솔과 리스테린 구강청결제를 대상으로 교차 가능한 원플러스원(1+1) 혜택을 제공한다. 오랄비 행사 제품은 ▲오랄비 탁월한 세정 초소형 헤드 CX3 입 ▲오랄비 고탄력 초미세모 틸트케어 4입 등 2종이다. 리스테린은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 ▲리스테린 토탈케어 마일드 2종이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CJ올리브영 ‘바이오힐 보’

엔에이디 프리즈셀 2종

CJ올리브영은 자체 브랜드 바이오힐 보에서 광채·항노화 제품군 ‘엔에이디 프리즈셀’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제품으로는 ‘엔에이디 프리즈셀 글로우 파워 세럼(사진)’과 ‘엔에이디 프리즈셀 글로우 필름 마스크’를 선보인다.

엔에이디 프리즈셀 글로우 파워 세럼은 유호 성분을 담은 2000개의 캡슐로 설계됐다. 캡슐이 피부에 부드럽게 흡수되면서 이마부터 턱까지 다각도로 윤기를 부여하고 피부 밀도와 탄력을 개선해 준다.

엔에이디 프리즈셀 글로우 필름 마스크는 특히 공정을 거친 0.03mm 바이오랩핑 필름 제품이다. 피부 굴곡에 따라 광채막을 형성하는 효과를 선사한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오가노이드’ 등 차별화 경쟁력 뽐내

2025 BPI

CRO·CMO 등 사업 역량 소개
신약개발 일정 가속화 전략 발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15일(현지 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막을 올린 ‘2025 바이오프로세스 인터내셔널(BPI)’에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BPI는 세계적 권위의 바이오 행사로 바이오 의약품 개발, 생산, 분석 등 바이오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부터 8년 연속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도 단독 부스를 운영하며 임상시험수탁(CRO)부터 위탁생산(CMO)까지 아우르는 사업 역량을 홍보했다. 특히 삼성 오가노



지난 16일(현지 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5 바이오프로세스 인터내셔널(BPI)’에서 이태희 삼성바이오로직스 항체배양PD팀 상무가 스피킹 세션에 연사로 참여해 발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드, 항체·약물접합체(ADC), 메신저 리보핵산(mRNA) 등으로 확장된 포트폴리오를 적극 알렸다.

16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이 발표 무대에서 기업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태희 항체배양PD팀 상무는 ‘신약개발 가속화: 개발 가능성 평가부터 임상시험계획(IND) 제출까지’를 주제로 고객사 신약개발 일정을 단축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초기 단계 개발 가능성 평가, 리스크 기반 화학·제조·품질관리(CMC) 계획 수립, 병렬 워크플로우 도입 등 고품질을 유지하며 개발 복잡성은 줄인 차별화된 방안을 설명했다.

허계연 화학·제조·품질관리(CMC) 지원팀장은 ‘분석법 공동 적격성 평가: 개발부서와 품질관리간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 생산을 위한 기술이전의 효율성 강화 및 개발 일정 가속화 전략’에 대해 포스터

발표했다.

분석법 공동 적격성 평가는 임상물질의 품질 분석법을 개발하는 부서와 이를 검증하는 부서가 함께 적격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존 각 부서별로 분리되었던 분석법 개발과 평가 절차를 통합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발 단계에서 평가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기술이전 단계를 생략하고 고객사가 의약품 개발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이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가능성도 낮출 수 있어 분석법의 완성도 역시 한층 높아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적으로 기술력을 강화해 발전하는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오스템임플란트 ‘Best HRD’ 재인증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6일 서울 페어몬트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인증서 및 인증패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인적자원 개발과 관리의 모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및 기업에게 부여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오스템임플란트는 2016년, 2019년, 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4회 연속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Best HRD’ 인증 로고 활용, 정기 근로감독 면제, 고용지원금 선정 가점 등 각종 혜택도 유지한다. /이청하 기자

종근당, 위고비 국내 판매… “비만치료제 시장 확대”

노보노디스크제약 공동판매 계약

종근당은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한국 노보노디스크제약과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국내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내달 1일부터 국내 병원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영업 및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하게 된다.

위고비는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세마글루티드 성분의 주사제로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량과 심혈관계 위험 감소를 돕는 비만치료제다. 단일 GLP-1 수용체 작용제(GLP-1



RA)이자 GLP-1 제제 중 유일한 생물학적 제제로, 인체에서 생성되는 GLP-1 호르몬과 94%의 상동성을 가진다. 글로벌 허가 임상 중 STEP 1과 STEP 5에서 평균 17%의 체중감량을 보였으며, 피험자 3명 중 1명에서 약 20% 이상의 체중감량 효과가 확인됐다.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STEP 6, 7, 11 임상에서도 일관된 체중감량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

특히 위고비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심혈관계 사건(MACE) 위험 감소 적

증을 보유한 비만치료제다. 지속적인 체중 감량 효과는 물론 체중 감량과 독립적으로 주요 심혈관계 발생 위험을 초기에 감소시키는 결과를 입증했다.

종근당 김영주대표(사진)는 “비만치료 분야에서 획기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위고비의 파트너사가 되어 기대가 크다”며, “비만 동반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및 당뇨 시장을 선도하며 축적한 종근당의 노하우와 다국적사 및 국내사와의 성공적인 공동판매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